

죽음, 준비하고 계시나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삶을 정리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큰 불행일 것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의도하는 바대로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죽음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안내

- 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국 지사 및 출장소 237개)
- ③ 지역별 등록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지역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서울	은평구, 중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더불어내과, 사단법인누가선교회누기한의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삼성서울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신촌), 이대의대부속목동병원, 연세의료원(신촌), 이대의대부속목동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사)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사)희망도레미, 각당복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 불여성개발원, 멋진인생월다잉, 사단법인월다잉시민운동, 한국메멘토모리협회, 행복나눔가피봉사단
부산	강서구, 동구, 부산 구, 연제구, 영도구	부산가톨릭의료원부산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삼육부산병원, 은종합병원, 해운대부민병원, 하브휴병원	부산웰다잉문화연구소, 생애말기돌봄연구소, 재단법인그린닥터스
대구	달성군, 서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의료원, 경남대학교병원	리더스웰다잉협회
인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검단탑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나은병원, 부평세립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서랑병원	대한호스피스웰다잉협회
대전	대덕구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웰다잉연구소
광주	남구, 동구	KS병원, 전남대학교병원	-
울산	-	이순요양병원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세종	-	-	-
경기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광명시, 군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부천시소사, 부천시오정,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구, 용인시시내구, 의왕시, 의정부시, 포천시	SRC노인전문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국립암센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노티나무의원, 로아신경과의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세계로요양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아기파의료재단시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안양생병원, 이로벌민일심의료재단우리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효산의료재단지생병원, 헬링웰요양병원	(사)호스피스코리아, 사단법인하이파밀리, 평택호스피스
강원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보건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소초의료원, 강원도원주의료원, 바른요양병원,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한림대학교부속춘천성심병원, 협재요양병원	기쁨가득사회적협동조합, 아라웰다잉연구회
충남 충북	공주시, 괴산군, 금산군, 보령시, 보은군,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영동군, 예산군, 옥천군, 음성군, 청천시, 증평군, 청안시동남구, 청주시서북구, 청주시서원, 청주시청원, 청주수출단, 충청남도서산시의료원, 태안군보건의료원, 흥성군	(법)인화재단한국병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충청남도서산시의료원, 충청남도천안시의료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청북도청주의료원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 대한웰다잉협회
전남 전북	고창시, 곡성군, 금산군, 보령시, 군산시,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무주군, 보건의료원, 부안군, 순창군보건의료원,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주군, 익산시, 장성군, 전주시, 정읍시, 해남군, 화순군	가족사랑요양병원,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예수병원, 전남재일요양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진안군의료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사)위드피플, 사단법인원불교 호스피스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 웰다잉전북연구원
경남 경북	거제시, 경상남도산청군보건의료원, 고령군, 김천시, 남해군, 문경시, 봉화군, 사천시, 상주시, 안동시, 양산시, 영양군, 영주시, 울진군,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마산, 창원시진해, 창원시창원, 칠곡군, 통영시, 포항시남구, 포항시북구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복지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문경제일병원, 보리수연세안심프로의원, 성심메디컬의원, 안동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영주적십자병원, 예손요양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
제주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도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병원	-

2020.8.11. 기준

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제작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1997

보라매 병원 사건
의학적 권리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에 대한 의료진 및 가족을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로 인정한 판례

2009

김활머니 사건
평소 본인의 연명치료거부 의사에
근거한 가족의 요청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판례

201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을 법제도화
하기 위한 권고안 마련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판례

2016.2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2018.2.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020년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전국 400여개소 지정 운영 중

Q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18.02.04 시행)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400여개 등록기관을 통하여 1:1 상담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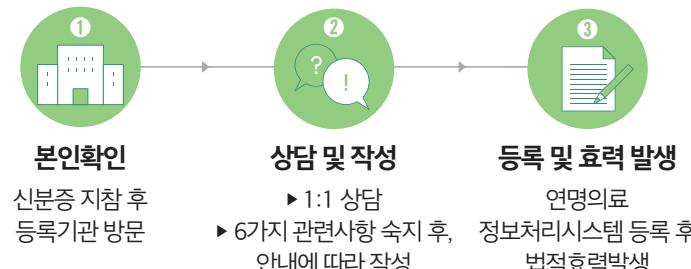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①심폐소생술 ②혈액투석 ③항암제투여 ④인공호흡기 작용 ⑤체외생명유지술(ECLS) ⑥수혈 ⑦혈압상승제 투여 및 그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 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4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상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향후) 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



작성 전 알아야 할 6가지



-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는 신분증을 치감하고 가까운 등록기관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조회:** 작성 15일 후 가까운 등록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열람:** 환자가 의향서 작성시 가족 열람을 허용한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 필요)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①‘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②본인 의사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학적 판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



본인의사 확인

① 의식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

② 의식이 없는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연명의료결정법 제반 사항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홈페이지 www.LST.go.kr ■ 문의전화 1855-0075